

가인글판우중二해국중합
할할日七초월六년三月國民

호일七초월六년三月國民한대
일三十 월五 月사신 력을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SERIES 28 VOL. 12 NO. 48I JUNE. 7 1941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i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속 달 코 것 달 은 일 본

뉴욕 폴래밍 서적 출판회사 서체 간 힐 등록을 본주 「속

달코 것 달 은 일본」 이란 척 이를 판되야 미국에 출판되리

라 광고 했는데 그 척은 미경에 개신 리승만 박수의 뇌

력 흥신 걸과이다

오데 벨서적 출판회사는 그 척 내용을 여파히 소개하

엇 소니 일본제국 칠 악에 만저 유린 닉한 한국 사람 이 일

본의 교의 홀개를 복로 헤야 일본이 국제 조약을 배반하고

영·미인 급선교사를 동양 서축 출하는 정 척 내용을 쓴 것

이다 리 박수는 공문과 서류를 징합해야 일본이 한·

만·주·중국·안남·성 타를 치와 흥으로 일본이 한·평양에

서 미국과 상대처 되는 것을 저술 했다 군벌과 세력 중

전족의 틀림 일본의 교너 흥을 목표로 흥에 중국 운명에 관

계된 것과 원통에서 비자 너는 실정에 미국의 위험 이 팔

게 되을 러 허 쓰 것 이다 (이 척 정가는 2 원)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사설

기독교회 5년계획



호랑안인기독교회는 전당부채 五千월을 금년안에
감보기로 교인들이 일제세보하여 전당부채 청구율을 차
수할 양스며 본보는 통교회 5년계획이 순성되기를 대
호노라
기독교회저부부의 5년계획을 불전진된 그교회발전방
법 능행히노코 그 서한너에 그설계오발설책, 늘실험기로
— 반교인들이 작년전당록연이의에 사십 — 번으로 특
언을더수봉호야 그빛을아조 뜻상너기로 결심하였다
하와이한인총인구는 千八百五十六인의 반수가 호
향파 오하우에 거류하며 특히 항우한인 수효가 제 — 만
라 그림으로 호랑안인기독교회는 재포한인의 충심자
가되어 동교회의 종교·교육·자선사업등의 발전이 즉제
가되여 동교회의 종교·교육·자선사업등의 발전이 즉제

학평양주보

한인장래와 번영에 달렸습으로 그교회발전책에一般
이 중대천임을 맛한노라

교회에서 종교양방면으로 청년을 지도하며 교육상
으로 신홍국 어학교를 관할하여 조국정신을 어린이에
게 너어주며 갈니히기독회원을 후원을 하며 자선사업
으로는 양로원이 있어서 늙은부옹의 여년안락파 편의를
모금한다 이상몇가지 사업을 차실히 전령함에 실상현
신사역인 부족이 우리 한인사회 의 유감일다
기독교회에서는 전당부채을 미감하고나서는 그교
회 소유인 스물수축릿 공터에 세장을지어서 그곳에서
수봉호는 가옥세와 합호야 세정건축비를 멋히간감보
흘예산일디

교회제산수입과 교인의 자치금으로 매삭 四百여원
경비를 써가는데 교회당국은 가옥세수입을 위성매삭
四百五十원세지 들어오도록 두자코 저흔다 만 — 가옥
세수입이 四五百에 달한다 흘예산일디 그교우들의 자치금
담부지력이 헐신적어질하여며 그교회저산수입의 멋
괴생을 뛰여서 헐로·와하아와 기독교회 경상비를 보충

홀수있도다. 거독교회발전적이다. 만호창에 만진절호관
계를 대질생의에 거성호리히아와, 히로두교회
도 중한관계를 가졌다. 히와이 군도에 산재호 거독
교인들이 맞달히 호항거독교회 발전에 성신성의 것도
을쳐임을가정노라.

호항교회에서 신당법을 각자는 것은 다만 호항교우
들의 욕심과 거대분만아니라 하와이 군도의 백한인
거독교우의 욕심이오 바라는 것이다. 그리우는 호항교
회를 잘해노고 레배당의 가대수입이 상당히면 그중에
세얼마를 썩여서 친으로·와하아와 교회유지에 풍설힐력
코져 흠이라.

큰집이 잘살면 쌔라세자구정도 낙너홀것파 맛찬가
지로호항교회 른자수임이 뇨내옹에 디방교에 다갖흔
리의 이잇개된너 그더음발전체 지절훈것은 레배당근
방에 샤피실건축이니 주일학교·독샤주례·독서실식당
파주방일다 교회의사 교실이 업서 二百여 청년남녀교
우들이 짐회홀데가업고 파뇌할수가 있다 각국인들은
각자의 사교진회실이잇서 종종파되·째~스를흔는데

우리청년들은 갈곳이업서 사세부득이 외국사람사교
상집회내가서 유희소일호는 광자연외국인 남녀교
제호으로 외국인에게 시집기거나 외국녀자를취서호
매그들의외국인파 혼인호을 반대는호면서 우리가방
비호도록 삼도우지안으면 그파설이 누구네게잇슬세
우리청년을 교회방면으로 인도호라면 우리청년들이
저희동족세리 가명을일우어 살기를원호면 二세국민
들이조선사람이라는 정신을 냇지안케호라면 한인의
갈망호는 독립정신을보전호면 다른수는업고 다만
二세한족의 협통을순전히 보전호에잇도다 그들이흔
종한코한족세리 유자성녀호야 잘살기를바랄진더 우
리는그들의 요구호는 사교 진회실을반드시 전설호여
야올로다 一세국민이 삼종파혼인안코 고유호단군후
손노릇호제호는것이 재포한인의 독립사업일각로생
호우리가 때도는 독립사업은 다만우리 담대성이오영
일부공한족의 독립사업은 우리아들·딸·손자들이 순
결호행동을보전호에잇는중활실히 잇는뻐라.

거독교회발전의 五年계획이 마법호야 성장호할것이

라쉬을주어서 학자대여로학업성취호사람이불소호다
리린성씨는 신체불건으로 업던경우에는 와서죽션
호만호처지에잇스르 학성회 사업을위호야 자거신병·분류정신·부
을불고호며 회서봉사호였다 그의원애심·분류정신·부
절불줄호는 용감에는한복호며 씨의계속적 사업전체
에경하호는배라 거독 학성회로인호야 한인사회에
유공호인자가나서 사교회를동샤궁에 저포한인은 리
씨에게하례호며 학성회에대호야 대소간 후원호며 학
식회의종교적 사업을권장호기를 바라노라.



국방사업에 한인학

— 독자

한인거독교 학성회는 리덕성씨가 1924년에 조직호
야 학성회에 유망호인재수양에 큰 꿈을 제작호
다 동학성회는 매년에 하와이대학과 미주대학에 스칼
판호야 한인학성의 학교생활이며 각방면의 운동을제
녁호재생문화으로 편천소개호여왔다 금년에는 10주년
창간이 출세되어 세인의 호감을 맛으며 바라서 한인학
생들의 재능으로 편집홍화를 위한에게 자랑호만치만
드려낸다.

한인거독교 학성회는 리덕성씨가 1924년에 조직호
야 학성회에 유망호인재수양에 큰 꿈을 제작호
다 동학성회는 매년에 하와이대학과 미주대학에 스칼

뛰어나도 매시간五十五점이오 최상은一월五十점식 된다 그래서 지금로 통계는 일군부족으로 신문에 대해서 특서로 구인광고가 나며 버려먹는 사립에게는 이런 조 혼시절이 전부였다 이런 경제 생활이 얼마 동안이나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뉴언부례』 같았지.

한인풀에 아조 뉴지안운이는 국방공사에 일할수있는데 일을 엎드라면 참전군인 의사좌지페퍼(회오군인 중명서) 국민군대 회적증명서가 풍이하고 만약 이상두 가지 페퍼가 업스면 이민국에 가서 씩고른씨를 차제보 고 입직 페퍼를 맛하다가 통록에 조례대로 채워서 틸적 귀화국에 갖다주고 퍼스트페퍼를 맛할수있다 퍼스 드페퍼는 시민되기를 원하는 선서지인고 그 페퍼를 가지고 군영급 진주안공사로 동주선소에 청원하면 취직할수있다

배운 저조가 잇세 전에는 시민권 관계로 취직 저못해 엊저안은 국방공사가 굽박훈련에 경부에서 미국에 대훈 — 반한인의 충성을 의심안하고 일을 하락 흥에 우리한 인은 이런 회에 우리 재능을 밟고서 미국에 충성호을

뵈이며 쌔라서 돈을 벌 수 있다
오하후 와이 바우에 사는 엇던 한인은 전주만에 목수로 쌔혀드려 갔는데 그는 못한개를 제대로 못박는 자일 드 수세조 케복수라 고드러가서 일하는데 심장이 아모리로 아도 그는 목수가 한인 것을 발전 후 순기능이 있는 나를 엇는 그 쪽에 야 한인은 자백 허기를 자거 노여년 돌세는데 파우더 맨이라 허매 그十장이 파우더 광색에 갖는 부처 쥬엇는 파우더 맨의 공급 운동 수공전 보드 갑절이 되에 불행중등 힘이 되었는
우리가 구직 허에 너무 엉뚱히 아노라고 거짓말을 것 은업스나 눈설미 있게 일을 치루어 가면 될수잇는 하와 이에 서 통용하는 반영어를 아파듯이 만은 대륙서온 사람들은 꽃생어를 아라듯지 못해서 의사 소통에 불편이 만라

이 글 쓰는 사람은 드립히 퍼스 페퍼를 엣어 일을 했는데 높았는 한인들도 구직기를 바라지만은 신법조정에 특별주의 허야 거죽말 누가 잘하느니 찰못하느니 장에 제고호지 말고 맛진일을 부즈런히 허여서 사역 후

논중에서 거량득으로 돈벌며 일도 배워서 미국 국방에 우리 재능을 밟쳐서 미국에 대훈 충성을 회일시다

미국에 새벽

싼 베린씨클에서

전호련 속

서기문

필자는 반항 태도를 가지고 강욱으로 드려가서 젓여 셜달동 안은 밤낮으로 다락날 것을 빼놓았다 필자는 전 거거게가 『二百여 개나 야단스러히 도라가는 삼풍장에 세일 후면서 죄수들이 본지를 무릅쓰고 서로 갈질하는 풍에 리가지 헐호풀을 목전 했다 간혹 전막을 풍을 두드리며 울화 푸리도 허보았다

그러게 애달워 허니가도 마음풀도 리켜서 아서라이 모양으로 계속 허나가는 나도 험걸 저릿천죄 수를 처럼 강욱설비를 파피하거나 과계간에 불질을 것으로 위 안어드려는 망상망동자가 되고 말티라 허야 이 암호로 기운차재 그무엇을 더 잘 흘려 인데 이여러히 시일을 무성히 허송술 필요가 없다는 자각이 엇셨다

이 만처열쳐나성이 쉬운일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예 려 주일동안 잘못된 내심 폭발안장을 이루고 조직전상 를 취하기에 무던히 이를 써서다 그래도 강욱에서 주 는 음식만은 필자가 어려히 라고 다니던 유롭원배에 음식 보 담휘근신 후송했다 필자가 깨끗한 청요우에서 쫓아내는 듯한장을 매일저녁마다 잣다 필자는 금벌이 아닌 새들에 강욱전설에서 살일이나 더러 날이 야기의에는 못홀터 말이 업시 다쳤다 필자는 최후로 미국 강욱생활이 저식 상이나 정신상으로 농저정치하에 서자 유·호다는 사람들을 보담 더 악한자 유형동이 온연히 습을 발견 했다 필자는 뜻밖게 서적세계를 차자였다 강우서적실에 친들이 매우 조기도 허리니와 마음다로 사서 볼수도 엇 셨다 필자는 정신나간 것처럼 밤이면 강우실이나 나이 먼 뜨거운 정월이나 페어파리 악기 소리가 요란한 광동 식장임을 분간치 안코 의세 마침다

강우교육부지 배설은 필자로 흥여 광 서적실을 맛탁 보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강우정면파 세적실암호로 유



가잇셨다. 미주에 죄인이 된 필자는 대학교육을 밟으려는 욕심이 갖득 험셨는데 유롭으로 말하면 상동사회에 안정한 교육이었다. 필자는 수준하고 결질진 고질성을 가지고 공부를 파고들었다. 필자는 이 빤이 오직一生에 하나되는 교육독단에 절대 회회라는 인상이 걸렸다. 필자와 주의는 영어를 그윽히 배울뿐만 아니라 그거 대회학문을 너너히 악교 잘쓰기까지 하려는 편으로 정기우리 젊디 필자는 가주 대회 피정에 있는 성문운신 문학파 솔작법 세자방호아 거친다 배화단 아래, 푸라이 쓰성생이 필자를 열심으로 훈장식했는데 필자는 씨회 지배하에서 강우원보색 거진하는 문문을 만히 썼다.

30여 개월을 지나서 필자가 방송되 엇스나 감옥에 좀더 잇셨스 면호는 성각이 간절했던 것도 전쟁이다. 필

자가 계획했던 광부는 체맛치지 못했고 그러나 필자와 다른죄수들과 좋은 배에 다실어서 출국식으로 강우 성활만을 힘들지언정 심신이 깃비顿강을 작별하고 족 격났다.

그후로 침약하고 불편한 8년 세월이 훌렸다. 덕국나

시정당에 모 학호공파 세력이 물밀듯 이례나을 반항하고 만족시 일을 응모 구절승에서 소비식했다. 필자 가 아름답고 자각이 애민하고 달력을 있는 피아레고리니 자를 맞나서 혼인호으로 아들씨 이 출성되었다. 그때로부터는 것불에 노래가 놀히셔서 혼돈혹암호세계를 뚜르고 소사 낫다. 그러나 히를리가 세도하고 있는 탄경 에서는 그것 불만을 보전식 할길이 업셨다. 여기이르러 세는 필자가 미주 강우에서 삼수면리상이 다호해졌다. 혁명이란 활동력이 피고자들을 소수에게 써밀고 있든 힘 세지사라지고 그자리에 한 번에 흥행된 신앙을 바리 지안으리라는 결심한겨우 낭어잇술뿐이었다.

그리케 훈훈결국은 쓴것뿐이다. 피고자님의는 무수 혼다른 사람으로 더부러 실패한 갑술물었다. 우리의 주 힘이 될곳에서 나시정당이 득승호를 끌어졌다. 우리는 비밀전립의 야만적 순서전횡에 채직았을 보았다. 피고자와 악수가 잘해갖쳐고 우리 의아들은 히틀러 국가의 소유물노세서 갖다 야생문화 감옥에 악행을 당하고 머물 노갓쳐었던 외로움은 무흔재 애원심을 자어냈다. 믿칠

셋째십화을 면호기위호야는 주종의제에 쓸을수 있는 테둘마다 안희와 갖치표류호야 미주에도 척혔다. 허구홍달나는 좋은감옥실에서 앉아갔다 헤고 또 무 수호법마다 고통 불격는 중 나시 학정하에 성활파 미주 생활이 절말노 반대됨을 확연각소했다 본거자의 감옥 거한은 13년으로 생활연연스되 거한이 차 떠나면 본거 으로 가게될것은 물론이다 이과학을 다쳐 둔다면 본거 자네의 외나이기 빙번이 널을 해 편이다. 글본거자는 속으로 장래가 업니미로운 천변도며 헛다 그 려나온연이 깁고 수준호회망에 소래가 속에 내 거절했 다 세월이 얼마가 걸리던지 저래기 분명히된다 그런장 래 냐씨니의 장래 미주를 생각하는데는 음성이들여졌다. 본거자는 회막업고 신세가 가려호 죄수로 이런계획을 정한것이 깁고 수준호회망에 소래가 속에 내 거절했 다. 그런장 래 냐씨니의 장래 미주를 생각하는데는 음성이들여졌다. 산보담 못지 아니 흘행편에서 이를개회한다 본거자는 불능한장래를 상상해면서 무슨의총으로 힘세울것세 지도 생각한다. 종말은 쌔니 벨원이라 부른것은 엉던특 벌호민족성세를 대표처안은 쌔니이오 쌔니이라 헛것

온 아들이들을 쇠 각함이다 본거자는 히틀러의 세력과 파수병과 채직만은 진짜 샤일이거나 홍제에 어리석게 몽상했던것이 천조각만 같았으로 배여졌다. 본거자는 엇제스 면지 샤라나고도 막혔다. 본거자는 헬헬단신으로 냉들고 물건업시 도망호야 1938년 도춘절에 뉴욕성에 도달했다.

미완

통신



와성동년 : 미국류군성은 미형공급 과 관사 기술

의용대용모에 참가케호기로 현직 샤임을 허락케호엇는데 미국 항공군이 중국의 용대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보유캐슬레이드 미국 정부는 대령 중 무과 대여법에 의호야 미국군인으로 중국의 용대에 참가하는 애설지정험을 엿개호며 쌔라서 중국에 보낼 폭격비행 사를 양성호하여 이는 신문보도에 중경부는 미국비행 사에 재증한 월급을 줄려이라 헛두 미국이 중경부를 그만치 군률과 인자로 후원호우 리평양위거를 원화

케호는 동시에 일본군과 남진척에 저상성각케호 이는)

영국 크레셤에서 괴복

론던던... 영국은 크레셤을 너코에 되해리세스저른 성사이 푸레스를 공수함으로 씨리아를 침격홀레이드 사이 푸레스는 메되해리안 동편에 잇서 영국일레그 샌드티아 히군근거지에서 시리아를 영국이 정을 험먼 샤이 푸레스방비가 용이 허되 악시리아가 대군에게 들어가면 영국의 아프리카 령지가 위험으로 우며 인도항 히항로가 아조 맥카세릴레이드

이탁운성국과 절전동야 영군이 이탁에 자유로군사 힁동을 쐐게 되었다 크레셤서 드수영군이 사망을 당하고 영군만 5千명은 망명동야 애급으로 드나났는 채 취 수상은 크렛전파가 영국의 대적격이 되지만은 샤이 푸 래스는 영사인정양보 안겠노라 허였다

었던방면에서는 크렛뢰군이 샤이 푸레스로 가지 안 코애급으로 갖는지 그리유를 모른드는 히들러는 크

레점령을 단행하여 세 샤이 푸레를 공격홀레이드 크 렛을 들만에 할취할예산 이었다바 13일이 걸려서 데군드수가 샤망호였드 크레셤 영국철병은 드션번제 일대노외이·던크·그리스·소미린·크레셤·영국위세 가감소되어 독재세력에 들여싸인더기는 업설수업시히 를려구혈에 암이 째질수업는 샤정일드 근동에 있는 소 약국들은 영국에 신고되었드가 영국정세가 급박함을 보고 전영정체를 벤홀렛하드 크레셤에는 침악호산이 있어서 항공방화군 작전이 불편하였지 만은 샤이 푸레 성은 평원왕야 타 항공습격이 용리 허리라 허여 영국은 크렛월페에 순양함 3 구축함 네척을 일었다

크레셤정복으로 인한 영본도가 침격을 닥힐세 광 행승인데 군사당국은 데군의 영국본토 침격이 실패될 줄잇는 드호였다

로마서는 크렛항락을 동맹파의 대성공이 마호고동 영국히군근거三百마일상거에 활동못하게 되었드 동맹항공이 적자를 정령하야 단결케 되었기 영국원정 대는 히군근거지에서 멀리 멀리 되어야 룩전에 허저략을

장개서의 대연거판이 되여서 일본이 동맹참가 기관에 떠이 천선을 저해 코제 애을 셨다 지금은 미국이 구전참가를 서기로 당하고 애를 본으로 동맹에서 떠나게 허도록 애쓰리겠은 헌연홍리처라 허였다

외국무역을 염보는 일본

동경년—영부는 도역원을 유히에 차리하야 애급·오 스후렐리아·뉴슬린드·아프리카·인도·홍콩·동네에서 사옹하야 일본부역자금에 통통홀리 이라 허였다
(그외에 일본이 비행와 군함소용석유를 미국서사 다쓰다가 미항거기를은 근래에 도사역되었다 와생흔 당국은 유수출을 금지하고 케호는 바 일본은 업설수업 시동인도를 성령하야 가지고 석유를 가져 가게노라 허

동경년—미국비행서의 출국의 풍미 참가에 허야 언론제는 친목순례를 취하며 중·일·시·변 이후로 중국 비행과 1千400여 척을 파상호여 노리 허였다 미국언론제가 동맹에 허야 오전을 성립함은 일본이 동맹을 허기지를 바라지 만은 일본은 동맹에 거인하야 지정방 칭을 불변케 노라 허였다

요미우리는 평호기를 미국언론제는 중일전 이후로



원예산보다 四十六 억 원이 증가되었고

류해군과 대성부 재민족의 흥 군비 총액은 四百三十

억에 달한다. 늘어나 영국의 군수품 주문 총액을 합하면
총히 五十九억 원에 달하리이고 핵스 수입에 산총액은 九十
억 원에 라 늘어나

루동령을 찬성

색주로 있던 — 제 유선문은 디서로 고립주의는 폐지호
교루 통령정책을 찬성케 노라 천명호 염대 국회는 정식
선전서를 반포 치 안었스되 우리가 전정에 듣나 다름이
업다지금 뢰보라 흠운 안될것이오 전정의 빈이 터 흠운
는 금시 초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무적 국가 위급시에를 반포한 후에 미국
언론계는 이전 대통령의 교정책을 시비 흠었다가 그론
조를 벙쳤야. 전국一起로 대통령을 반듯시 전국민심이
단결된 성의를 뵈인다. 공화당의 유력호출판도 루통령
을 국력공박호다가 지금은 온다Ron조를 끗쳐 루통령의 정
정책을 밟들어 간다.)

더·이 두독재미 근의

로미던……부래네에서 히틀러와 무슬리니가 일의를
하는데 내정은 동양국이 미국의 대영원조 방어로 뒤
세계에서 작전호제회이라 늘어 五시간 밀의에 일본과
레기도 참성호였다.

혹은 예측기를 통행파가 아우디카 세거 홍해로 스의
스·질부 알리 등 세 꽃침격이 밀당문제라 늘어마라

치외 법전 폐지 찬성

중경년……혈국무정의선언호바 중국에 대호 치외법
전은 평정되는 데로 폐지케 다합에 소당신보는 차양호
기률이노 중미량국 친선의 증거라 탕국의 호상 부홍을
의론호나라는 중미량국이락 홍였다.
미국제부는 중경당국에 대호바 군수품을 리예역호며
비행사 참가를 성식하락호며 천선정신을 실제로 뵈이기
위하야 거의一百년이나 실히호든치의 법전을 중국에
양보호드려이더라

원정 세급박을 예 족

와성thon……와성ton스라는 관설호기를 미·일 양국은 국
제 상병통을 만들어 원동령세가 불완간 급박호상린재
잇스리라 늘었다.

일전에 노리스성의원은 디세양의 위과가 절박호으
로래 평양에 정박호할리를 되서 양으로 옵기자 늘었다
그러나 실제로 엿서서는 원동에 있는 미국인 전부는
인양호엇고 필립원에 거주호든 류해군과 죽전부를 인
양호였다.

동양실적을 조사한 국호는 라·푸주보 주필루스씨
는 6월 3일에 애버리어스에 말하기를 일방이 중국서
해매지 못하게 되었다. 흥은 조종거리나 일방은 장개석군
더의 二千마일 전선에서 점투호니 중국군되는三百사
단인데 그중一百八十九사단은 조련을 상당히 맑은 장개
석의 청병이다.

일본은 중국의 항일군을 터하호라 남진을 계획호자



중경에 폭자 심

을 경년—일항공티는 루차 공습 흥야 三百명이 사상

하였고 전불순해가 만히 낫다 더라

(마스옥가는 중·일정전을 발론라가 주 남경일티사

흔다는 외상 평화설을 반티하고 화제 흥야 군벌파와

합작이 되야 마스옥가의 평화를 향거 키로 중국서 일병

이 풍격을 다시 개시 했었다



잡보

더 충학 존업성

금번도 하와이교도 대중 학생 중 한인 수효는 三百六

十四이다 대학교 졸업생은 二 hundred 이오 중학 졸업생은 一百七十인

百八十인이오 인력 미의역 중학 졸업생은 一百七十인

이다 호향에 본부를 둔 하와이 한인 고독 학성회

총무 터티 성색 의보 고와 동계를 거 훈족 금년 여름에 터

학교 졸업생은 예좌 흥니

한매리·김설리·리해·우리·리마리아·리매리·리순우

남데빗·순개미린·

루스벨트 중학교·장원배·체조이스·김매리·김사파

권캐더린·권정만·리커후롯·리그레스스·민엔드루

박엘씨·박해리·성행론·

릴리후아 광학·장마주리·최마구례·선페잇·

전페اس시·김일리스·김세니·김푸레더릭·김학만·

김요선·김루이사·김리나풀풀·김송분·김스터너리



총무
김세기

김스테니웃·고데시·리제리·리퇴·와이·리제세·리요
선·팀애니·팀리오넬·오펠순·嬖재넷·빅루·리·바·메·근

편상우엘·선애스러·셔엘푸테스·위루시·유월라·

맥킨리승학·안릴리·조요한·최릴리·한풀로라·한

서추롯·한요섭·강월리암·김데빗·김서클라스·김에이

워스·김푸린스시·김제일스·김마구택·김케더린·김ძ

라·김피리·구엘리노·공문학·리새바라·리클리린스

리유니스·리저니스·리트리벗·리립마스·민힐벗·문영

율·남엘리사벗·오에스터·박엘리노·박쏘라피·박효웅

박으로스·서월리암·송설비아·유끼·리

파령thon승학·장비주리스·장데빗·장상우엘·장숙지

차폐시시·전뉴들·정일벗·정으리쳤·김애리리스·김개

에리리스·김싸니스·김바울·고엘리사벗·리애니·리엘

서·리아이다·리제·그큐니·리해기·리하울·리으리벗

필요선·마애들리·박글래디스·박할론·손쏘리스

가후구승학·김더글라스

센루리승학·최요선·김요선

매리놀리승학·김으리베가·신쓰라

김씨 벌세



미드피스피기·하헬레·김애드락센드·김헬론·김
요한·박메이로스
직업학교·정남성·강피리·리성준·염화율
와일루아 중학·주영월·최재임스·도화드스·도조지
홍바울·김베시·김행리니·김현리스·윤왕성·오길순
센엔드로·김애드니·김해설·민엘리노·
이오라니 중학·고영호
류인병원 간호원 양성 학원·김으로서
현주교학원·김마리아
하와이엔미순중학·김고라·성글래디스
호항성경학원·장원배·조요한·정월리암·김매리안
김으롯·전영만·리서추롯·리클리스·리해나·민엘리노
문세근리·오에스터·박엘시·박쏘라피·박요성·양귀니
(중학 졸업생 세 명은 래호계속)

라성의 김순권씨는 5월 분에 벌세 흥았는데 김씨는
화성동지회에 다닌 노력 후 통지되었다

전보

영법이교 전황

론돈던—비지정부는 군동시리아의 영군 전령을 방비기로 항공대를 준비해야 가지고 덕국 원조로 셔서리 아에서 이전련합국인 영국과 개전케 험리이다 시리아는 법국의 위임통치국인데 덕국이 그사를 점령해야 스위스 윤하를 공습으로 영국이 시리아의 항공장파 군사설비를 차지코 저항했다 영국 위임통치국인 패리스란에 영군 수효가 만호며 무장 배치가 법국 보다 우승함으로 법국은 덕국 구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영법전쟁을 무쳐서 히키를 공갈하며 아프카페카를 접경을 예상이라 했었다

버린세는 법국의 동방을 혀락해야 항영전쟁에 완만 혼합동을 주겠노라 헤며 덕군의 시리아 도착은 영국이 거짓선전을 것이라 했었다

한국으로 결정하였다
법국부총리 대란은 반영파로 덕국승리를 리옹호야 범제국 지위를 보유기로 히틀러와 합작함을 천성호는 이다 히틀러는 구전평정이 후에 구라파신 질서 정돈에 경제와령로 분월에 법국에 상당한 뒤 살충법을 밀약호에 자신보도에 의하면 히틀러는 법의 전역민디를 덕에 환부하고 그린 영국식 민디를 차지하고 기로 헛였다 법국 관찰로는 덕국이 승리 흥복에는 찰라히덕의 편에 못려 세자국의 광활한 식민지를 보전하는 통시에 권위를 신장코 저한다 미국에 터호야는 강령이 만화서 아모리 미국의 광물이 주것은 고맙지만은 법의 위정에도 움지 안을니 출수 업노라 헤며 이전동맹인 영국과도 엇걸수업시고 전후게 된다 했었다

미국을 참

와싱턴던—스크립·하워스 연쇄신문은 미자성씨는 데 이랑국 거두밀의에 터호야 평화기를 히틀러는 미국

이전정준비가 보안호이재에 미국으로 참전케 헤야 영국에 가로 보낼수업개 안풀예산이라 덕·이랑국은 일본으로 선발호야 미국과 충돌기를 거두호엇스나 일본령개운어리세계 맹동치안코 전란의 변동 빙판 험리 헤를리가 이린디를구 원호여 노코 불간불 전암호야 영국의 섬명인한리를 못쓰게 헤여 노엣디 모추갈파터 기도 미국 참전령서에 토명에 들게 되었다

千五百톤을 서빅리아를 풍호야 덕국에 보내고 일본은 화학약품·거제등을 수입호다 했라
상해던—국내식료품 발매회시가 감을 증가호라는 음모가 빌각되야 중앙제부 법무성은 「四상사회사위」 八十九인상티로 소송호엇더라

크레저 패들비란

론돈던—영국이 크레스서 전패를 당호야 영국판민 은비분장개호야 전부의 전적이 무능무호함을 시비호 었다

동경던—원통해오는 영국판민 三十八인이 항항색 모허서 항경에 경화호 항공근거디설치전을 의론호바그 항공장은 영·미량국이 사용호리라 했었다
미국에 식량운송
경에 항공근거지
파교자 할례인고로 일보이 미국파 작전처안을 용서가 업스리라 했더라

상해던—일본과 전란호승국으로서 중요식량품

태평양주보

반디파는 생명호기를 영국은 예전제략을 짜라 크레트 방비를 들판히 못해서 덕·항공습격에 죽거나 왔다 지난 6개월간 영국은 크레트에 방비를 못하고 총칼노 항공을 헤정함은 될수업션순즉 장교변동이 필요호나 했더라 참전이후로 영선청수총들은 五百九十六만주돈이 아호는데 덕편서는 一千百六十六만주돈이라 했었고 五

월동안에 잠항명으로 四十七만九千吨과 항광 폭격으로
로 二十一만五千ton 영선을 침몰하였다더라

인사 소식

본항을 악귀사 입가 김세영씨는 사업상관계로 거

월 二十九일 선편에 태성에 갖다가 「사후회 환호례」이다

○ 신성근 의학박사는 거월 二十九일 선편에 미주로

보래항 흘었다

○ 태성에 류호는 선정무씨는 거월 중순에 래항 흘었다

○ 리덕여씨는 한죽교병원에 들어가 치료 중 차도가

잇다더라

박 二 用 千 은 건축 학업

힐로의 고·박동수씨 둘제자제 二用千은 미주에 전

축학을 졸업하고 八월에 금의환향 흘겼다는 소식이 그

모친에게 왔다더라

내기로 허락한 방명록은 여좌하니

김성필·리영숙 각 五十원 서재근·제임리부부·

김영기부부 각 三十分·고상갑 二十分·

차신호·조경화·서정일 각 五十分·정운서 二十分·

서거·박봉조·김창순·리종완·차순남·리진언 각 一원·

리성우

당청장 특연 대 활동

임의 보도 훈련과 것처 호황 한인과 독교우들이 거三十

일에 선홍국어학교에 모해서 전당 청장에 판호 것을 탄

상도의호후 一班교우들이 교회 빛을 감는데 전력 흥기로

결행하였다

당석에서 현금으로 수봉된 것은 여좌하니

가루기에는 전축사업가 리영춘씨는 二十원

송제준씨 二十七원五十전 배일질씨 十五원 한선복·

팀평순·서거·준·손승운 각 十원 유달연·김순근

박봉선·김구영·김상범·김주현·문복터·문매리 (이상

두사람은 문순상씨의 장성호자녀) 각 五원·양세문

一원·리성우 一원·

† 원 김학성·정운서 씨 부인·홍필립·홍으리화사

김치명·민씨 각 二十分

안찬일자를 정못알고 신홍학교에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그 중 호사랑은 미호기를 내가 잘못알고 악서이야기를
들은즉 다 살피었으므로 나도 특언을 낭비 갖치내겠노
라하고 현금을 내었다

이상득연년교인들은 작년 二월에 허락한 제례을 필 남혹은 본납호이들이 다 그교인들의 꾸통의 항은 금년

내로 전당부채 청장에 저력 흠을 찬성 흘었다

그날 만찬은 설악보 조회원들이 설비부족호데서 애
울썩서 진성진미 二月 만차우 티전호 았다

동교회에서 본 청연문을 발하고 청연위학을 선책하

야 전당빛각호돈을 선구호하여라더라

리·홍당인호례시 7

고·우정조씨장녀 새근리양파 리봉을 씨장자 토복군

의 혼례식은 래 二月 일하오 七시반에 릴리하고 독교례
배에서 거행호다더라

와이나구	최준경	기성필	한구렛스	천엘리사벳	리성필	김일만	황철
파히로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부네네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와하아와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한디색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파이야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기성필

○ 주보금
호항 김치덕 一원 김덕운 四원 리성필 四원

김상필 四원 ○ 파하우 김홍주 四원

파히로 황천일 떠원

파이야 구락 호경호 四원 리수임 四원

인구색

황정일 김경남 김성필 한구렛스

천엘리사베 김노순 김진영 김경

호 강근월 김일안 각一원 ○ 호상금 二十六원 五十分전

○ 저축금 九원

○ 양합금이 三十五원 五十전

도구 랍금 고약 예한 것

독립금 예약 총액은 작일사지 약 7千 50원이 응모 되었고 아직도 방박곡이 한인주택을 신방하며 오하 후각디방에서는 구역을 정호야 가지고 독립금 예약을 거두는 중이다

오하후서부디방에는 위원회를 예좌히 조직되었으니

오하후서부디방

주무원 김제한 세자길팔석

저무 김례준 김국경

국방위원회 최창덕 수련위원회 현도명 유진석 조용

주 박인규 김병률 리봉수 손세환 안순서 김상연

림봉태 五十원 정도경 一八원 박봉순 五十五원

배거준 十五원 리춘화 十五원 김기중 五十五원

표경현 十五원 김봉선 一六원 최창덕 一六원

김근 五十九원 김팔석 三十원 황교근 三五원

김병률 三十九원 송세환 三원 배유수 一五원 유진

석 一百廿원 박종수 一五원 김경화 一五원

김영주 一五원 김순니 一五원 송기준 一八원

임형순 一二원 신거섭 卅원 황매리 一五원

김홍근 一五원 김우재 一五원 최현숙 一五원

김영선 一五원 김영원 一五원 한경선 一百卅원

손승범 六十원 전병찬 五十원 위례은 廿五원

김홍순 廿五원 박유근 廿五원 김제한 一十五원

박영진 一十원 한룡규 一十五원 양윤명 五원 김승률

부인 一十五원 문순장 一八원 유달연 一二원

박래선 一八원 리상옥 一五원 리상종 一二원

김제현 一二원 리인덕 一二원 박민범 一十五원

도영호 一五원 리문박 一十五원 홍종수 一二원

김도인 一五원 박석보 김치덕 김진봉 김성옥 유달연

정인식 一五원 김영기 一五원 김주현 一十五원 손덕연 五원

권도인 一五원 박석보 김치덕 김진봉 김성옥 유달연

조판역 一五원 김수사 一、廿五전 한형록 二、五〇

김영기 一、廿五전 신홍군 五원 손순택 一、廿五전

안현경 고상강 각五원 배거준 一、廿五전 천엘리사벳

최영기 一、廿五전 신홍군 五원 손순택 一、廿五전

장현진 二、五〇 김수사 一、廿五전 한형록 二、五〇

김봉서 五〇전 리덕현 一원 손숙운 一十원

최영기 一、廿五전 신홍군 五원 손순택 一、廿五전

양응환 一十五원 조억지 一、廿五전 함금복 一十五원

최준덕 一十八원 안영선 一十五원 리경로 一十五원

서기운 一六一원 리미호 一四一원 양세운 一六원 정인

김제덕 一三一원 김진봉 一三一원 양세운 一六원 정인

김수원 一五十九원 박윤식 一五〇원 서치수 一十원

허락호 신항에 현금으로 낸 것

안원규 一百원 죄성요 죄명혁 심영석 선을로 죄인

선 각廿五원 김성범 천진화 각 一원 표현 리호직 차신

호 김상필 각十원 조덕상 이의식 김현구 바봉진

송승관 김진형 김진웅 서성순 강영효 각五원

○ 캠 ден류 각승진 三원 황경선 一원

○ 허나 장차영 장한조 최자석 각 二원 황경선 一원

이성운 김성년 각 一、五〇 정국현 장동각의 一원

○ 타나이 윤윤식 一원 리성실 一원



팡진축과수리 四一五二四

팡식물전방팡

百
호로

본인이건축파수리며 천장^{天井}는것을 한인에게는 렴가
트잘히드일리이니 구구시돈지 가대와 가구수리를문
의호시오 돌담파 컨크릿도홈나다

북·스쿨스추릿 五四九 정인석

던화 八八七九一

○○팡 고 ○○

본인이 다른사업을 경영하고 호텔거리 一四六호에
잇는저봉침전방을 방매코져호우는데 한인의제는 득
별정가로방매겟습니다

각종의복파 저봉거구가 구비홈나다

호텔거리 一四六호 재봉점 주인 주·에푸·풍백

이 삼 二四면매근 二十二월

十五면주인 황통익
식물상장주인 황통익
던화 六八一一一
Y. V. W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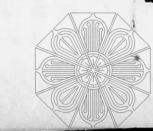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고빈

○○고(풀인씨)판

본래파우 파화우야 기체에찌린송오며 꽁짜가선성
호야위성에 적합하며 항구중앙에있으니 상업장에전
리호며 대운목육물은 늘었고 매사를 잘주선호야선속
수옹호야드림나다 一한동모색서 만히차자오시음
풀인씨 러판주인 김서울 빙

一一四九 풋거리 던화 六八三五九



동양으로가는비

○○팡 강의사오피쇼 팡 三六四
고 一월

사랑시세

사자전화 五一九八

의학박사 강경복

미화

한돈

一百원

六월

廿五일	피어스	二十一일	다수다·터푸트
직손		나라마루	十九일
한돈	三·四五	가마구라	廿六일
廿四원		클리부린	야와다

돈시내

태평양주보

二十一

팡식물전방팡

百
호로

본인이 베리한니아거리 아아코너에 식물전방을
신설호엇사웁노레 (각항식물·각색채소·각종화설·식
물로는 업는것이 업살니다 물전운 죄요 신선한것을
취해하고 같은 다른전방보다 좀 철호재 파울너다
의심마시고 본성전에 차자와 서 한번 시험히보시오

특별히 농장에제신종포도 세부락 호울너다 식물의
엇이먼지 원호시도미로 부락호시면 꽃수옹호여풀일
허이오며 쏘호 농장에서 채소동속에 무엇이먼지 본
상생에 보니고 부락호시면 상당호감에 팔아세실수
업시히들일리이오니 구구시먼지 한번 시험히보시고
피차 인연을마저서 장리사업에 취미를여개함세다
호항 베리한나아거리·아아하고니 一一一九호

이 삼 二四면매근 二十二월

식물상장주인 황통익

고빈

던화 六八一一一
Y. V. WHANG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보드위기장례소

四四·五五
一 년

본 장례소는 한인 청년에게 특가로 장의 법전을 보아
도 해서 수십 년에 걸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으로 동지회 호상부는 본 장의 소와 상약하고
일반 호상부원의 장례를 특별히 가에 정호야를 입니다.
이는 호상부원뿐 아니라 일반 한인에게는 원
근을 물론 호고공손하고 대정호제봉사호 허이의다.

보드위기장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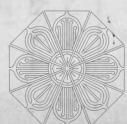
누아누
던화
一五六二호
五六八

Borthwick Undertaking Co.

Distinguished Service Through the Years

1562 Nuuanu St., Honolulu

Telephone 5658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喚起百萬同志

大慶陽州報社

同志會大三綱

DONG JI HOI

□一、

우리특별선언서해 광로홍파 광약

매주례식일발행
사무소……복킹—스후릿 九三一호
우함……一五七三년화……八九八四九

三정을 실시호자니 三一정현을 발휘
야비록력인 회생적 힘동으로 우리

농야 끗갓지 정의의 인도를 주장호

대업을 성취호자

조직적행동이 성공의요소아니우

리는 개인활동을 절바리고 단체

법위안에서 질서를 존중호며 지휘를

복종호자

주필……김영복 一권……一〇
편집…… 二년……四〇〇
발송…… 本사로 죽지호시오
전부……리유설 一권……一〇
주소를변경호면 즉시
본사로 죽지호시오

▲ 주의호시오 ▼ 풍자회승양부 사무소 고민
▲ 거서나 회에판계호 세류는
중앙부장 손승운씨의개로

▲ 척을청구호나 정지호나 천에판계되는것파

▲ 각항광전과 주보 대금을제루

리유실씨의계로 보내시음

Y. S. LEE

發揮三一精神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